

전산학부 선거 후속 조치 공유
공유 일시 : 2022.01.22
작성 : 전산학부 선거관리위원회

먼저 지난 회의에서 긴 시간 함께 논의해주시고 발전된 학생사회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전학대회 인준안건 15(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출 보고)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게 되어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 (1) 선거인 명부 관련 검토 필요
- (2) 유권자 1/3이상 투표 검토 필요

(1)에 대해, 전산학부 학생회칙을 다시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된 동명이인 1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18학번 전산학부 주전공 재학생 (과비 납부 여부 관계 없이 선거권 부여) 김*연 님이 계시고, 16학번 수리과학과 주전공, 전산학부 복/부전공 재학생 (과비 납부 해야만 선거권 부여)김*연 님이 계십니다.
- 학과 사무실에서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까지만 전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과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금자명을 '김*연' (세글자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과비 납부시에 학번 뒷자리와 이름을 모두 입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라고만 입력해주셔서 당시에 저희의 부족함으로 공식적인 방법으로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전화번호, 메일, 등)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확인할 방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거권이 누락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하여 16학번 김*연씨도 명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문제의 중대함을 다시금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이지 않은 사적인 인적 자원 경로를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16학번 김*연 님의 과비 납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6학번 김*연 님께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셨기에 실질 투표수에는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전산학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후속 조치로서 잘못 부여된 선거권 1을 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전산학부 회칙은 물론 상위 회칙을 모두 확인하여 충돌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상황으로 인해 동명이인에 대한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전산학부 회칙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차후 선거에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회칙 개정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2)에 대해, 김*연님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시정하고자하며, 전체 유권자 687명에 대해 1/3인 229명의 유효 투표로서 선거 성립을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내용이 지난 인준 안건에 대한 전산학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속조치 내용입니다.